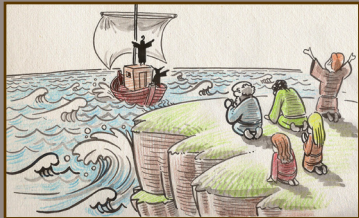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나레이션 이곳 저곳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과 핍박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하... 아..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모아준 성금을 전해 주어야겠구나..

바울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지?

나레이션 그래서 바울목사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는, (벧소리) 배를 타고 곧장 내려가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목사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올 때 선물 알죠, 잉?

나레이션 바울목사님 일행은 두로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형제1 와우.. 바울목사님 어서오세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레이션 두로의 형제들은 바울목사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계획을 듣고는 모두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제1 목사님,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장난 아니게 살벌하답니다.

형제2 가시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핍박합니다.

바울 형제님들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형제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꼭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합니다. 꼭이요 꼭!!

형제1 아이고.. 안됩니다. 바울목사님 지금 가시면 진짜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한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2 아이...가시면 안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흑흑흑..

나레이션 그러나 결국 일주일이 지난 뒤 바울목사님 일행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로 형제들은 모두 항구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바울목사님 일행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레이션 바울목사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바울목사님! 어서 오세요~ 먼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애, 뭐하니? 물 한잔 내와라.

바울 허허 빌립~ 그래, 잘들 있었나? 반갑구만 허허허...

나레이션 바울목사님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던 어느 날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목사님의 허리띠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보 목사님!! 바울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빌립** 커허...!! 어머 저거 내꺼 아니니? 나 잘못된 일 없는데... 애아가보.. 너 잘못 들은 거야냐?
- 바울** 하... 빌립.. 저건 내 것일세..
- 빌립** 바울목사님, 잡히신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 아내** (울먹이며) 바울목사님 왜 이리 이 일에 집착하십니까? 죽으시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흑흑....
- 바울**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겁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묵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 나레이션** 너무나 확고한 바울목사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 빌립** (울먹거리며) 엉엉.. 바울목사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럼 떠나십시오. RIGHT NOW!!
- 바울** (당황하며) 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바로 보낼 필요는 없잖나... 조금만 더 있다가..
- 아내** (울먹이며) 지금 안가시면..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지금 당장!! 가시라고요.. 흑흑..
- 바울** 아이 참.. 이 사람들도... 하..
- 나레이션** 그리고 며칠 뒤에 바울목사님 일행은 행장을 꾸려서 계획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 바울** 거 사람들 참.. 누가 보면 일부러 등 떠미는 줄 알겠네.. 허허..
- 나레이션**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 몰랐지만, 바울목사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